



"함께 꿈꾸며

지혜, 건강, 행복을 가꾸는"

2025

정읍서초 교육과정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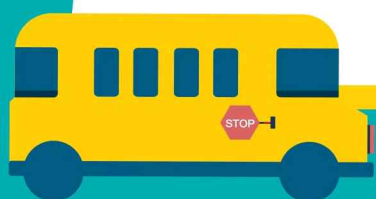


일시 2025. 3. 19.(수) / 14:00-

장소 본관 3층 시청각실

대상 정읍서초 교육가족

정읍서초등학교



차례

1. 공교육 정상화 추진 및 선행교육 예방 안내 .. 1
2. 학교폭력 예방교육 3
3. 아동학대 예방교육 6
4. 가정폭력 예방교육 7
5.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교육 9
6. 학부모 인권교육 11
7. 자녀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역할교육 13
8.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 14
9. 청렴 교육 15
10. 학부모를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17
11. 정읍서초 상담실 상담 안내 19
12.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24
13. 학생 체험학습 등 출결 안내 26



2025학년도 공교육 정상화 추진 및 선행교육 예방 안내

1. 추진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포(2014.3.11.)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선행교육 근절 추진 계획(2014.7.7.)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4.9.12.)

2. 추진목적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인식 전환** 추진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출제문항 최적화를 통한 공교육정상화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3. 용어 정의

용어	주체	의미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 (학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선행학습	학생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선행출제	교육관련기관 (학교)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4. 학교 책무성

<특별법 제5조 제2,3,4항 ‘학교장의 책무’ >

-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장 결재)

5. 선행학습의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1.3.11.)한 2021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4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학교폭력 예방 교육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 학교폭력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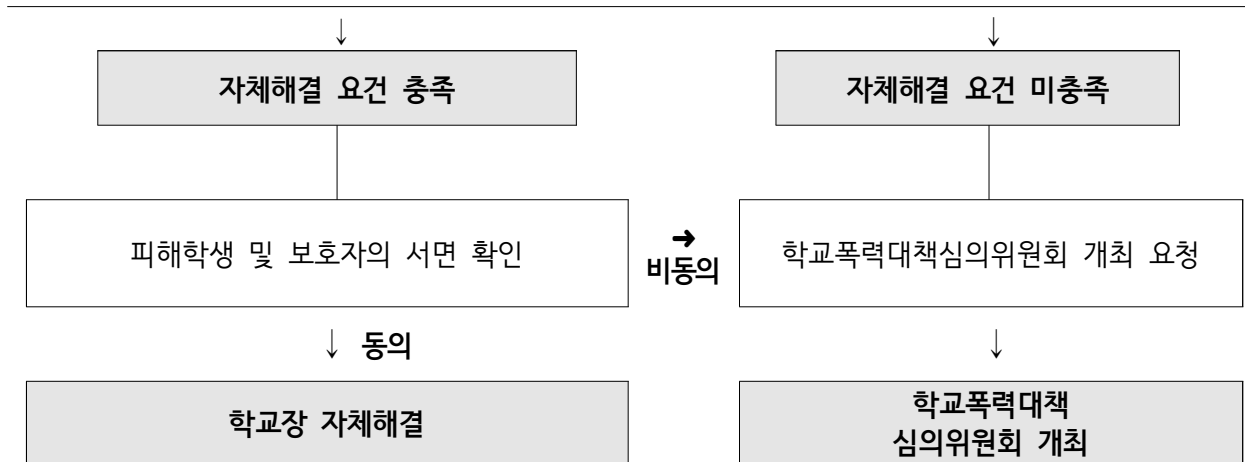
유형	예시상황
신체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며,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등)과 문자메세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협박)
금품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 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건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강요)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칭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3. 학교폭력의 징후 점검사항

- 사주지 않은 물건을 친구에게 받았다고 한다. • 용돈이 모자라다고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 한다.
-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외출이 잦아진다.
- 인내심이 부족하고 화를 잘 내며 충동적이다. • 밥을 잘 먹지 못하고 말이 없어지기도 한다.
- 갑자기 돈 씹씀이가 커진다. • 자주 몸이 아프며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한다.
- 핸드폰 화면을 가리거나 내용을 숨기려 한다. • 옷, 운동화 등 소지품을 자주 잃어버린다.

4.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단계	처리내용	비고
학교폭력 인지	• 교사·학생·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신고 접수 및 보고	• 신고 접수 사안을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에 기록, 학교장에게 보고,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최초 사실 확인, 교육지원청에 사안보고(48시간 이내)	업무 담당자
분리/ 학교장 긴급조치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관련 학생 안전조치 • 2호 접촉금지 시행, 필요시 피·가해학생 학교장 긴급조치 •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피해학생(보호자)이 요청하는 경우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긴급조치 시행 가능	학교장, 담임교사 등
사안조사	• 사안 배정 후 학교 방문 • 피·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 조사(면담) 실시 • (필요시) 관련 학생 보호자, 관련 교사와의 면담 진행 가능 •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및 조사결과 보고 -학교(전담기구)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전담조사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요건 전담기구 심의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전담기구 심의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 ◆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자녀의 상황 및 교우 관계를 파악합니다.
-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가르칩니다.
- ◆ 혹시 학교폭력을 당하게 된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꼭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 상담이 필요하다면 꼭 담임교사와 의논하여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부모님이 함께 학교-가정에서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고운 언어 사용, 부모님께서 모범을 보여 주세요.
- ◆ 가족 간에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 ◆ 최근 청소년 유해 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변종 '룸카페' 운영 사례 발생 증가에 따라 청소년의 탈선 장소가 되어가고 있으므로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힘씁니다.

6.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안내

- 1) 전화 : 117 학교 폭력 무료 상담 및 신고
- 2) 온라인 신고 : www.safe182.go.kr
- 3) 스마트폰 앱 : 안전드림, 117 CHAT
- 4) 문자 : #0117
- 5) 학교전담경찰관 : 김반석 (전북정읍경찰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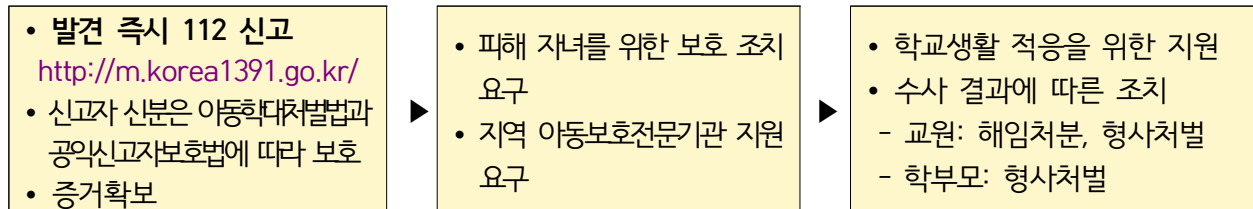
1. 아동학대의 정의

구 분	정의	비고(관련법률)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및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 범죄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 아동학대의 종류: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및 유기

-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방임),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

3. 아동학대 발견 시 조치 요령: 신고전화 112, 전화상담 182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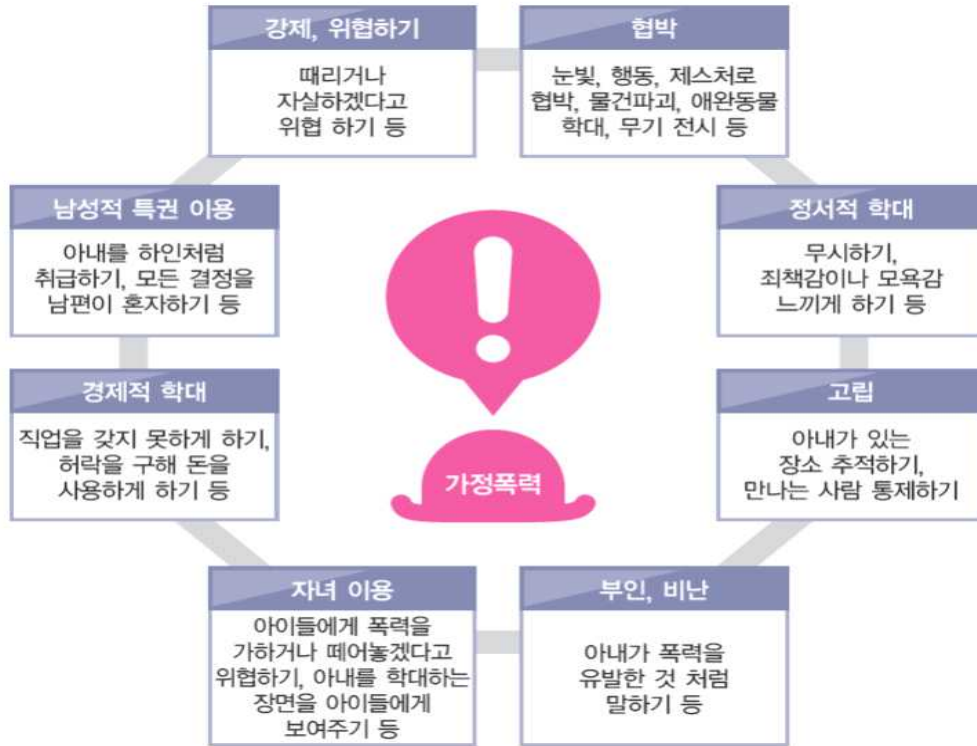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바람직한 훈육을 위한 몇 가지 원칙

- 우선 사랑과 공감의 필요합니다.
- 훈육의 기준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동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실천하도록 합니다.
- 왜 훈육을 하는지 알려주고 감정적으로 아동을 대하지 않습니다.
- 자녀에게 문제가 보이면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예방 교육

1.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



2. 가정폭력의 예방 방법

• 화 조절하기

화는 폭력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화를 조절하는 데에 실패하면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들게 하는 상황들을 떠올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폭력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터득하여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합니다.

•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쌓인 감정들을 풀고 칭찬을 통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 칭찬 한마디 하기

칭찬이 가장 필요하지만 칭찬하기 가장 어색한 대상은 가족입니다. 칭찬은 좋은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칭찬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으므로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 상대방을 **소유·통제**하려 하지 않기
- **평등**한 관계 인식 노력하기
- **존중**의 언어 사용하기
- **평등한 가정 분위기** 만들기
- 성 역할 **고정관념** 버리기
- 구성원 간 서로 **소통**하기



3. 가정폭력 피해지원 기관

기타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577-1389)
건강가정센터(577-9337)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지원센터,
지역종합사회복지관 등

여성긴급전화
1366

- 365일 24시간 위기 개입 상담 (초기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 7일 이내 긴급보호
- 지역관련 기관 연계 (쉼터, 법률, 의료 등)
- 13개국 이주여성 자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지원
- 이주여성쉼터 연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가정폭력
상담소

- 평일 9:00 ~ 18:00 정기적인 상담
-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정기관)
- 피해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지정기관)
- 부부 및 집단 상담
- 지역 관련기관 연계 (쉼터, 법률, 의료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지속적인 상담,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
- 자녀와 함께 생활 (의식주 무료제공)
- 학습지원(비밀 전학 등)
- 자립 지원 (취업 연계, 직업훈련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자녀의 변화에 주의 기울이기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학생 11.5%는 자살 생각을 하고 있고 2.4%는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어른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예민하게 살펴보면 자녀의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습니다.

1. 죽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는 시기는 만 10세 경입니다.

- 만 10세 이전의 자녀가 죽고 싶다고 말할 때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 힘들다는 호소일 수도 있습니다.
- 죽고 싶다는 자녀의 호소를 무시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2.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보이는 징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갑자기 식사를 잘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 짜증이 늘어나고 침울하고 우울하게 보입니다.
- 두통, 복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 일기장이나 SNS 등에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 지각, 등교 거부 등 평상시 해오던 일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 집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수 있습니다.
-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 스스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위험한 행동을 보입니다.

3. 자녀가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는 이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 “요즘 많이 침울해 보이네. 혹시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니?”
 - “네가 죽고 싶다고 써 놓은 메모를 봤어. 엄마는 너무 걱정되는구나.”
- 아이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충분히 들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 언제부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세요.
 -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지, 죽으려는 행동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자살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고 아이의 관점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 ‘죽겠다.’라는 자녀의 말이 단순한 투정으로 느껴지더라도 자녀에게 그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 서서 진지하게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자녀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해 줍니다.
 - “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어, 도와줄게”
 - “네 생각보다 엄마는 너에게 관심이 있고, 친구들도 있잖아.”
-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세요.
 - “엄마(아빠)가 널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 “그런 일이 있어서 네가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던 거구나. 그 일을 엄마(아빠)가 도와줄 테니 함께 해결해보자.”
 - “내가 보기엔 네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함께 병원에 가보지 않을까?”
- 분위기 쇄신을 위해 자녀의 요구조건을 일부 들어주거나 가족 간의 외식,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처방입니다.
- 신속한 조치를 합니다.
 - 만일 어느 시점에서 자살을 감행하려는 전조나 불안한 기운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4.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이 있어요.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곳에서 자녀의 마음 건강 상담이 가능합니다.

<p>■ 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선생님께 의논해보세요. • 우리 학교 상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p>■ 지역사회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 Wee센터 ☎ 063-530-308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63-536-1388 정신건강복지센터 ☎ 063-535-2101 - 추가적인 진단검사 및 상담 가능 	<p>■ 학생이 직접 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 전화 ☎ 1388 • 청소년 24시간 SNS 상담 ‘다들어줄게’ • 청소년 24시간 상담 채널 ‘라임(Lime)’ •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p>■ 인터넷 사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의 전화 http://lifeline.or.kr • 한국자살예방협회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	--

학부모 인권교육

1. 학생 인권

• 인권의 개념

오늘날, 인권이란 말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다.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학생 인권의 개념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과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가. 학생자유권(존엄, 신체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성실현권, 사생활보호권, 정보접근권, 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보호받을 권리 등)

나. 교육복지권(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권, 안전권, 소수자의 권리 등)

다. 참여권(의견제출권, 학생자치참여보장 등)

라.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 인지교육 실시 등)

• 학생 인권의 목적

학생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학생 인권의 제한

• 학생 인권의 제한

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30조)

나 타인 배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 필요

- 합의된 규범 준수의 중요성과 위반 시 책임의 엄격성 인식 (인권교육의 중요성)

학생인권보장 범위는?

- ◆ 인권은 개인의 권리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현되고 완성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교육마저 거부하는 것은 학생인권 보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3.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고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 가족의 인권 지수는? 체크(✓) 해 봅시다.

내 용(학부모용)	체 크		비 고
	○	×	
1. 가족과 함께하는 일들이 많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인권 지킴이
2.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킨다.			
4.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			
5.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한다.			
6. 아이들의 의사 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7.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8. 가족 구성원 간에 정중한 언어 사용을 한다.			
9. 아이를 형제들과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10.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 자녀 존중 십계명 실천하기

- ①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한다.
- ② 가정 안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 ③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는 단지 조언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 ④ 형제-자매간에 성별, 나이, 학업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 ⑤ 자녀를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 ⑥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일방적인 체벌보다는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⑦ 교육적 체벌도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지 부모 자신이 먼저 성찰해야 한다. 자녀를 때리지 않고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욕설해서는 안 된다.
- ⑧ 자녀를 흥분한 상태에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 ⑨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생각과 생활 태도를 지니도록 늘 가르쳐야 한다.
- ⑩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되, 자녀의 사생활도 보호해주어야 한다.

자녀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역할

학교폭력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미래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실천을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친밀한 가족문화를 만들어요.

- 1일 1칭찬의 시간 갖기
- 온 가족이 함께 가훈 만들기
- ‘스마트폰 없는 날’ 실천하기
- 가정 내 ‘가족의 날’ 운영하기
- 가족이 함께하는 ‘공감 소통데이’ 운영하기
- 가족이 지켜야 할 일 「가정 생활 협약」 만들기 등

2. 밥상머리 인성교육을 실시해요.

“가족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어휘를 익히고, 이야기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상식과 지식을 섞어 문화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체득한다.”

-하버드대 연구 결과-

- 주 1회 이상 온가족이 함께 식사하기
- 자녀와 소통하는 시간, 배려가 있는 대화의 시간 갖기 (1일 1주제 정해서 생각나누기)
- 예절 교육 및 기본 생활 습관 지도하기 등

3. 자녀의 마음을 여는 대화를 나누어요.

- 자녀의 행동에 담긴 마음 읽어주기
- 마음을 말로 표현하게 하기
- 자녀와 부모의 소통은 “나 메시지”로 하기

너 메시지 표현	나 메시지 표현(행-감-바)
네 옷을 제대로 벗어 놓아야지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어떻게 해?	(행동) 입었던 옷이 여기저기 널려 있으니 거실이 지저분해서 (감정) 엄마 마음이 심란해. (바람) 벗은 옷은 옷걸이에 걸어두면 좋겠어.

4.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 체육활동: 배드민턴, 축구, 산행, 배드민턴, 자전거 하이킹, 달리기 등
- 체험 및 관찰: 캠핑, 생태체험, 밤하늘 별자리 캠프 등
- 봉사활동: 줍깅, 양로원 봉사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교권보호)

교육활동 보호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 ▣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2022.7.12. 전라북도교육청)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022.12.27.)

제정 이유

▣ 교권 침해 사례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교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주체 상호간에 존중과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 교권 침해 사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

-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람의 신원을 훼손하는 행위
-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나 부당한 간섭 행위
- 상해·폭행·협박·재물 등을 망가뜨리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권의 보호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예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교

모두 함께 만들어요!

청렴 교육

가. 청렴의 정의

- **청렴(integrity,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의미한다.
- ‘극적 의미의 청렴’, 법령 및 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위반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부패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 첫째, 반부패: 법령, 규칙이 규정하는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
 - 둘째, 투명성: 정부 및 사회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
 - 셋째, 책임성: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나. 청렴의 중요성

- 개인의 청렴은 가정의 평화와 조직의 건강 사회 발전의 공통된 요소이며 상호작용 속에서 청렴문화는 성장해간다.
- 청렴문화의 성장은 다시 사회적 자본으로 보이지 않는 비용을 축소시켜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국가의 청렴수준은 그 국가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대외적 이미지, 국가 경쟁력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국민과 정부의 신뢰도가 향상됨으로써 거래비용 감소 등으로 국민소득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다. 청렴한 교육현장을 위한 학교의 노력

- 학년 초 교장, 교감, 행정실장의 청렴 서약서 작성 및 비치
- 청렴 및 반부패 교육현장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 및 실시
-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을 위한 교직원·학부모 연수

▣ 불법찬조금 알아보기

- ◆ 불법찬조금: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 ◆ 촌지: 학부모가 교원에 제공하는 금품으로 잘못된 관행이며,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부패행위에 해당됨

〈 학교발전기금 · 불법찬조금 비교 〉

학교발전기금	구분	불법찬조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성 정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 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 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구성 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 ※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미편입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용 목적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 청탁금지법 Q n A 로 알아보기

Q.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캐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캐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Q.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하를 불러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당에서 축하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선생님과 면담 시 선생님께 음문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원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관하여서만
일부 규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등의 수수금지 등)이 준용되고,
학부모의 본래 직업이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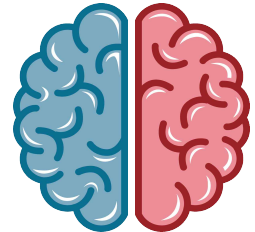
학부모를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 확대 등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온라인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이용은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양질의 교육자료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유해 정보 접근 용이, 스마트폰 중독 등의 양면성을 지니면서 학생들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정보 통신윤리 교육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1. 우뇌증후군

- 스마트폰 동영상은 좌뇌만을 강하게 자극하여 우뇌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 우뇌가 발달되어야하는 직관적 사고기에 좌뇌만 발달하여 좌우 뇌 균형이 깨짐
- 충동성 과잉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2. 팝콘브레인(popcorn brain)

-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 게임 등을 지나치게 오래할 경우 발생
-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스마트폰에 몰두하여 뇌가 팝콘처럼 튀어 오르는 정보에만 반응하고 상대적으로 느린 현실에는 무감각해지는 현상



3. 학습능력 저해

- 빠르게 움직이는 동영상에 익숙해져 정적인 활동인 독서가 어려워짐
- 자극 -> 정리 -> 표현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스마트폰의 경우 보통 '자극'만 이루어짐

4. 언어 발달, 정서 인지 발달에 악영향

- 스마트폰 동영상은 단방향으로 이루어져 '듣기', '말하기'의 양방향 소통 시간이 줄어들어 언어 발달의 기회 감소
- 가톨릭대 심리학과 발달심리연구실 실험결과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유아일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짐

<스마트폰 사용 습관 확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척도(관찰자용/성인용)' 활용

<http://www.iapc.or.kr>

<자녀에게 말해주어야 할 인터넷 이용수칙>

- ▶ 부모의 허락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절대로 직접 만나면 안 된다.
- ▶ 부모의 허락 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 ▶ 인터넷에서 자주 만나 친해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사진을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서는 안 된다.
- ▶ 인터넷을 통해서 부모의 허락 없이 물건을 주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그리고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 인터넷상에서는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이름,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부모의 허락 없이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 ▶ 폭력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우리 아이는 스마트폰 중독일까, 아닐까?>

우리 아이 스마트폰 중독일까?	확인란에 O 표시
스마트폰이 근처에 없으면 불안하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간다.	
스마트폰 키보드를 치는 속도가 빠르다.	
스마트폰이 보물 1호다.	
아무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릴 때가 있다.	
식사/공부/독서 중에도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바로 확인한다.	

- ▶ 위의 7가지 중 6개 이상이라면 스마트폰 중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외에 운동, 독서 등 다른 활동에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스로 스마트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 ▶ 위의 7가지 항목 중 3~5개는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스마트폰을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하고,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 ▶ 위의 7가지 항목 중 0~2개는 아이가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관리>

■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 스마트보안관, 아이스마트키퍼 등

청소년이 스마트폰에서 불법 유해정보(앱,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정보 및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용 SW입니다. 부모 스마트폰에 설치한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 · 앱 · 웹사이트 관리, 자녀 스마트폰 이용 통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읍서초 상담실 상담 안내

I 상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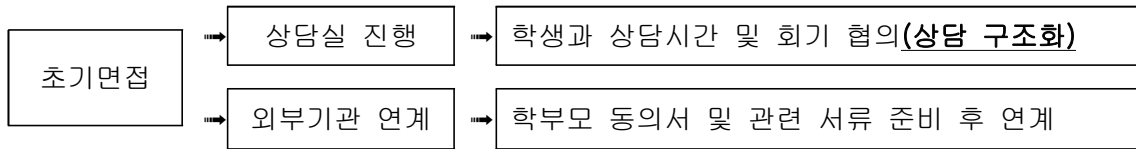
1. 감성소통공간: 단체/개인, 실적/마음, 감정, 느낌
2. **예방적** + 반응적 상담
(학생들에게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자해, 자살,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중대한 고민이 있을 때 시기 적절하게 개입하여 학생을 도울 수 있음)
3. 심리상담 中 학교상담 中 초등학교 상담(아동상담)
4. 상담의 성패 : 자율성(내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
5. 상담의 목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 문제 해결의 실마리
6. 초등학교 위클래스→중고등 위클래스→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로 연계된 교육과정

II 우리 학교 상담실

1. 위치 : 측관 2층 (학습준비물실 옆)
2. 전화번호 : 070-4269-4981, 063-539-3947
3. 이용시간 : 주중 8:30~16:30
4. 로저스의 인간중심주의 상담 + 해결중심단기상담 지향
-인간중심주의 상담: 공감, 무조건적 수용, 진실성
-신뢰로운 관계(라포 형성)- 상담자의 이중관계금지 원칙
-비언어적 의사 소통에 유의(웃차림새, 태도, 표정 등)+건강 체크
5. 학부모 상담, 교사 자문

III 상담실 이용 방법

1. 학생 : 상담실에 와서 예약 후 상담(예약제)
2. 교사 및 학부모 :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 신청 후 상담(예약제)
3. 상담 진행



IV 유의 사항

1. 초등학생 상담의 경우 학부모 동의서 필요
2. 수업시간 상담시에 담임교사와 학부모 동의 필요
3. 상담시간 40분, 1주에 1회, 진행 회기는 보통 3~6회기
4. 상담종결 및 추수상담

- 상담 종결 결정	① 목표달성 : 학교 내 지지관계를 형성, 초기 설정한 목표달성 등. 주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된 뒤에 종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추수상담	종결 후 학생 상황을 의뢰교사와 상담교사가 지속적으로 점검한 후, 재상담이 필요할 시 상담

V 라포(rapport) 형성

‘다리를 놓다’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기원한 말로, 신뢰관계를 형성함을 뜻함.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특성상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며 상담관계의 성패를 좌우함

VI 상담 윤리- 비밀보장의 원칙

1. 비밀보장의 원칙

상담내용은 예외상황을 제외하고 비밀보장

2. 비밀보장의 예외 상황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해를 가할 가능성(자해 및 자살, 학교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우, 범죄와 연루된 경우, 전염성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등

VII 상담 윤리- 이중관계 금지 원칙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상담자-내담자 관계>를 제외하고 다른 관계로 만나거나 형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예)친구관계, 이성관계, 금전관계, 제자관계, 감독관계 등

VIII 상담 관계의 전이와 역전이

1. 전이(transference) : 내담자가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을 상담자에게 옮겨서 생각하는 것.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를 싫어하던 내담자가 상담자가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보일 때 아버지를 싫어하던 감정이 전이되어 상담자를 불편해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
2. 역전이(counterTransference) :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무의식적인 감정반응.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고 내담자를 싫어하거나 좋아하게 되는 것. 상담에 방해가 되므로 상담자는 자신의 욕구나 문제를 상담관계에서 분리해 낼 수 있도록 수련해야 함

IX 상담의 구조화

상담 진행과 관련된 내용을 내담자에게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한 다음 내담자와 **협의**를 거쳐 상담의 구조적 형태(상담목표, 상담시간, 상담횟수, 연락방법, 상담윤리)를 만들어 가는 것

X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1.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 특징
2. 7세 이전 아동 초기에 발병
3. 유전, 뇌의 신경생물학적 요인이 결정적
4. 50% 정도는 성인 ADHD로
5. 역학조사 초등학교생 13%로 보고됨
6. 남아에 더 흔하게 발병
7. 불안장애나 반항장애 등 다른 질환과 동반 흔함
8. 학습 의욕 저하 + 좌절감 + 부정적 자아상 + 불안
9. 치료: 약물치료가 핵심

XI 상담에 대한 궁금증

1. 상담은 대화 아닌가요?

아니요. 상담은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상담자와 학생의 신뢰로운 관계(라포)를 토대로 학생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성장배경과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현재 당면한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조력하는 일련의 과정이 상담입니다. 따라서 상담은 단순한 대화가 아닌, 상담교사의 전문성과 고도의 집중력, 상담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추수지도가 필요한 활동입니다.

2. 왜 상담을 하고 있는데도 문제행동이 계속되나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그들의 성장배경과 연관되어 있어 오랜 시간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학교 상담은 학생들과의 좋은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작은 나쁜 습관 하나를 바로 잡는데도 솔한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하듯이, 상담을 하고 있는 과정에도 문제 행동은 지속될 수 있으므로 학생의 변화의지를 북돋아 주는 인내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3. 상담 회기는 얼마가 적절하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뢰된 상담은 대부분 동기가 없는 비자발적인 상담이므로 1-2회 단회 상담으로 끝나기가 힘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통 3-6회기 이상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4. 상담 효과 있는 건가요?

상담은 학생과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해나가는 과정입니다. 변화는 항상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상담에서도 구체적이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여 실생활에서 연습해 나갑니다. 즉시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단기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서서히 변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자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5. 상담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의 경우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ADHD, 심각한 우울, 자살·자해, 품행 장애 등의 문제를 가진 학생들은 진단을 통해 심리치료(병원, 외부 전문기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 상담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장기간 상담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센터나 사설 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상담이 기록이 남나요? 낙인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입니다. 상담과 관련한 사항은 상담교사가 개인 온라인 서버에 암호화해서 내용을 저장하지만 이는 상담교사만이 열람할 수 있으며 생활기록부 등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7. 누가 상담받아야 하는지?

우리 가족의 문제야. 가족상담의 ‘희생양’ 개념. 가족의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리는, 가족의 갈등을 완화하는 ‘희생양’. 역기능적 가족에서 가족 갈등을 완화하는 개념임. 누가 상담받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1. 특수교육 용어 정의

- ▶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학생 개인의 고유하고 특별한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정·배치된 학생 (예: 지적장애, 청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발달지체 등)
- ▶ **통합교육**: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참여
- ▶ **특수교육** = 개별화교육계획 + 관련서비스
- **개별화교육계획**: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 **관련서비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예: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보조기기 지원, 통학 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 등)

2. 본교 특수학급 현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특수학급	특수교사	보조인력
특수교육 대상학생수	1	2	0	0	2	1	6명	1개	1명	1명

→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시간제 통합교육 6명

3.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절차



→ 정읍특수교육운영계획에 의거 홀수달에 실시(진단 검사 무료, 검사 결과 공유)

4.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가. 차별금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특수교육 대상학생으로서 수업, 학생 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및 생활지도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

▶ 평등권

다른 학생과 동등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개인의 적성, 능력과 특성에 맞게 적합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자기 결정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할 권리. 자유로운 참여와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 인간 존엄

방임, 무관심, 학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며 학교 구성원 간에 상호존중의 인간관계를 형성

5.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대상	교육 주안	내용	비고
전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학기 1회, 연 2회 - 4월 22일 - 11월 6일 	본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를 존중하며 관계를 지속하는 적절한 방법을 배우기 다양한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깨우침 활동 등	4. 2. 세계 자폐인의 날 4. 20. 장애인의 날 11. 4. 점자의 날 11.11. 흰지팡이의 날
교직원	연중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무 연수 이수	12월, 연수 이수 결과 보고

6. 가정에 드리는 조언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가정

-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방법 익히기
-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게 알려주고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주기

▶ 비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가정

-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묻기
- 친구들 사이에 차별과 혐오의 표현을 삼가기
-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무조건 참지 말고 보호자 또는 교사와 상담하기

학생 체험학습 등 출결 안내

1. 체험학습 대상 및 종류

-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 나.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으로 구분하여 추진

2. 체험학습 운영 방법

- 가. 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자(학생)가 신청**하며,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실시
- 나. 학생이 체험학습을 하는 동안 교육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교장, 담임, 보호자 등이 공동으로 학생 지도에 임함

3. 교외체험학습

가.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학생)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신청**(1회 신청시 최대 10일까지 가능)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단, 4시간씩 2회 신청 시 1일로 환산)
-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 동행 및 책임**하에 실시
- 5일 이상의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서(담임교사)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 안전상태를 확인

나.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담임)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4. 결석

- 가. 결석: 수업일에 학생이 학교장이 정한 등·하교 시각 사이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음
- 나. 결석의 종류: 질병 결석, 출석인정 결석, 기타 결석, 미인정 결석 등

5. 질병 결석

-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 나. 반복되지 않는 2일 이내의 결석으로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 학생의 결석
- 라.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6. 출석인정 결석

- 가. 천재지변(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보건학적 고위험군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나.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의심자 및 감염 우려 학생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하는 경우
- 다.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7. 결석계 제출

- 가. 결석을 하게 되었을 때 **증빙서류**와 함께 별도 양식의 **결석계**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나. **질병 결석**
 -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 증빙서류 1부, 결석계 1부
 -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중 1부, 결석계 1부
- 다. **출석인정 결석**: 청첩장, 장례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증빙서류 1부, 결석계 1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석계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학교중이 앱-제출게시판’ 확인